

■ KIA '풍운아' 권윤민 남해캠프 결의

"내년 화려한 부활"



'풍운아' 권윤민(27·KIA·사진)이 고감도 방망이 소로 재기의 희망을 쏘이고 있다. 남해 캠프에서 내년 시즌을 준비중인 포수 권윤민은 4차례 연습경기에서 중견수-지명타자로 전 경기에 출전해 팀내 최고 타율인 15타수 6안타, 타율 0.400을 기록중이다.

물론 동계훈련의 시작인 마무리 훈련인데다 연습경기를 가지고 타격을 평가하기엔 다소 이를 감은 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KIA 코칭 스태프를 끌끌게 하고 있다.

네차례 연습경기서 맹타

15타수 6안타…팀내 최고

서감독 "지명타자 활용"

2007년 2차 5번으로 KIA에 입단한 권윤민은 무너만 신인이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다 복귀한 역대 최고령 신인이다.

권윤민은 선수 경력보다는 신인드래프트 파동으로 유명세를 치른 인물.

인천 동산고 졸업 후 연고구단인 현대로부터 1차 우선 지명을 받았던 권윤민은 지난 99년 인하대 시절 시카고와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으나 어깨 부상으로 2004년 10월 방출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외 진출 후 2년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는 규정에 뛰어 낸 신분이 됐고 부업으로 방송해설가로 활동하는 등 야구판을 걸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인 야구선수로의 복귀를 위해 개인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16일 법원에 낸 '신인 2차 지명'을 받은 권윤민은 험난한 훈련을 거쳐 2006년 10월 KIA에 입단하게 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훈련을 거듭할 수록 타격 실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면서 "현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시즌 지명타자나 대타 요원으로 기용해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며 흐뭇한 표

/남해=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야구, 아시안게임 3연패를 향하여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야구 국가대표팀이 1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 코치진으로부터 수비에 대해 지도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리턴 매치

양용은



내일 일본 던롭피닉스토너먼트 출전

양용은 세계랭킹 38위…39계단 껄충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스에서 세계랭킹 1, 2위 타이거 우즈와 짐 퓨리(이상 미국) 등 세계적 강호들을 모조리 꺾고 정상에 올랐던 양용은(34·계이지디자인)이 나흘 만에 우즈와 리턴 매치를 갖는다.

양용은과 우즈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의 피닉스골프장(파70·6천901야드)에서 열리는 일본프로골프투어 던롭피닉스토너먼트에 출전한다.

던롭피닉스토너먼트는 총상금 2억엔에 우승 상금이 4천만에 이르며 일본프로골프투어 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특급 대회.

뿐만 아니라 해마다 미국과 유럽에서 뛰고 있는 최정 상급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인다.

우즈는 지난 2002년 이 대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2004년과 작년에도 출전해 이번이 벌써 4번째 출전이다.

2002년에는 공동 8위에 그쳤지만 2004년과 작년에는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올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한편 14일(한국시간) 세계프로골프투어연맹이 발표한 세계 랭킹에 따르면 양용은은 지난 주 77위에서 39계단이나 도약, 생애 최고 랭킹에 올랐다.

연말까지 세계 랭킹 50위 이내를 유지하면 양용은은 내년에 마스터스를 비롯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4개 메이저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인비 테이셔널, 아메리칸오픈스페셜챔피언십 등 굵직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탱크' 최경주(36·나이키플프)는 지난주 28위에서 한계단 오른 27위에 자리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야구 FA 대박 누굴까?

LG 이병규 4년 42억~48억 협상중

한 동안 뜬했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소식이 이번 주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박을 터뜨리는 이는 올해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박과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20억 원'을 이제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7일 FA를 선언한 선수로 공시된 12명 가운데 계약한 이는 SK의 김원형 뿐이다. 그는 SK와 2년간 7억 5천만 원에 계약했다. 나머지 11명은 17일까지 원 소속구단이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병규(LG)다. LG는 이병규에게 4년간 42억 원~48억 원 사이를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을 준비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얻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김연중 LG 단장은 14일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합숙 훈련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17일까지 최종 담판을 치를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우한 투수 박명환(전 두산)은 계약이 길어질 분위기다. 박명환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박유현씨는 "일본의 경우 박명환이 원하는 구단은 제시액이 적고 그렇지 않은 구단은 많은 돈을 주겠다는 자세다. 18일 이후 구체적인 협상 상황을 공개하지만 돈보다는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구단으로 알아보고 있다. 미국 진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환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기 못했기에 거액을 손에 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액을 손에 쥘 이로는 진갑용(삼성)도 있다. 주전 안방 마님으로 삼성이 3번이나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진갑용은 과거 관례에 비춰보면 20억 원 이상은 예상해 놓았다. 다만 4년 계약이 될지 3년에 읍션 계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거액을 끌고 있는 건 이병규(LG)다. LG는 이병규에게 4년간 42억 원~48억 원 사이를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을 준비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얻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김연중 LG 단장은 14일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합숙 훈련 중인

우승상금 100만달리를 노려라

LPGA ADT챔피언십 내일 개막

16일(한국시간)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개막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ADT챔피언십은 '로또 우승상금'에 '서바이벌 게임'으로 치러진다.

이 대회는 선수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방식과 별난 상금 분배표로 화제를 불렀던 이벤트이다.

올해 성적이 따른 포인트 등으로 추려낸 32명의 출전 선수는 1, 2라운드 36홀 경기에서 16명은 3라운드에 진출한다.

3라운드에서 다시 절반인 8명은 탈락시키고 '최후의 8인'이 4라운드 18홀 성적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4라운드 진출자를 가릴 때 1, 2, 3라운드 성적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1, 2라운드에서 살아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3일 동안 꾸준히 좋은 스코어를 내야 한다.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인 셈이다.

그렇지만 일단 8명으로 좁혀진 다음에는 앞서 3라운드까지 성적은 의미가 없어진다. 최종 리운드 순위는 오로지 당일 18홀 성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총상금 155만 달러 가운데 우승자 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00만 달러에 이르러 사실상 '승자 독식 게임'이나 다름없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32명 가운데 32%인 10명, 올해 '코리안 파워'의 쌍두마차로 자리 잡은 김미현(29-KTF)과 한희원(28-월라코리아) 등이 출전한다.

KLPGA 투어 중국서 첫 개최

오리엔트 차이나레이디스 오픈

내일부터 4일간·총 132명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사상 첫 중국 대회인 오리엔트차이나레이디스오픈(총상금 20만달러)이 16일부터 나흘 간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오리엔트골프장(파72·6천489야드)에서 열린다.

아시아 여자골프 선수들이 주축으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132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한국은 38명이 참가, 우승을 노린다.

특히 KLPGA 상금왕과 대상, 신인상을 사실상 확정지은 신지애(18-하이마트)를 포함한 박희영(19-이수건설), 최나연(19-SK텔레콤), 안선주(19-하이마트)의 '10대 4인방'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다.

중국 선수들은 실력이 한 수 아래인데이다. 유럽과 미국 국적의 선수들도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 이번 대회는 중국에서 벌이는 '한국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른쪽 손목이 좋지 않은 신지애는 "투어 일정이 빠듯해서 괴로워하지만 친한 언니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출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애와 상금 경쟁에서 뛰어진 박희영은 메리츠솔모로클래식에 함께 출전해 화제를 모았던 동생 박주영(17-한영외고)을 캐디로 대동한다.

KLPGA의 한명현(53) 수석 부회장도 중국골프협회의 초청으로 대회에 출전, 눈길을 끈다.

이번 대회는 SBS골프 채널이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